

## 전남도-포스코, 지역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 협약 체결

(주)MTS 등 4개사와 협약...맞춤 지원으로 실질적 성장 유도

전남도와 포스코는 1일 순천 (주) MTS 등 도내 4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안명길 (주)MTS 대표와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 강태욱 포스코 광양제철소 혁신허브팀장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잠재력이 큰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다양한 협업체를 가동해 기업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컨트롤 밸브를 생산하는 (주)MTS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생산하는 (주)동부그린 ▲대기수질검사를 하는 (주)윤테크 ▲케미칼 제품 등 화물 보관과 탱크로리 입출하 등을 관리

하는 (주)수택터미널이다. 전남도와 포스코의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기업의 안전·환경·설비 관리 등을 진단하고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마스터 플랜 수립,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효율 향상을 끌어낸다. 전남도는 컨설팅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도 주관 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이 실질적 성장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순 과장은 "전남도-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해 동반 성장하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욱 팀장은 "현장관리 경험과 동반성장 수행사들의 성공체험

이 기업에 전파되고 현장에 실제화 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전남도, 포스코를 비롯해 협력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광양만권 인적자원개발(HRD)센터 관련자들은 행사 후 (주)MTS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바다과 통로 도색, 창고 정리 등 재능봉사를 하면서 상생하는 동반성장 혁신 의지를 함께 나눴다.

지난 2021년부터 동반성장에 참여해 지원받은 순천 (주)프릭사는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제조사로, 현장 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74건을 발굴, 작업장 환경과 공정 등 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생산라인별 자재 보관과 부자재 입출고 관리 프로세스 효율이 30%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



전남도와 포스코는 1일 순천 (주)MTS 등 도내 4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안명길 (주)MTS 대표와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 강태욱 포스코 광양제철소 혁신허브팀장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지난해부터 지원에 들어간 여수 지역 드럼용기 제조업체 (주)인성도 현장 진단으로 개선사항 94건을 찾

아냈다. 설비 불안을 안정화하고 작업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드럼 이송 컨베이어 진·출입과 물품 보관창고

컨베이어 안전장치 등 50건을 개선하는 등 원활한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 기아, 카케어 프로그램 3종 리뉴얼 출시

기아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 받는 카케어 프로그램 3종에 대한 혜택을 한층 다양화해 새롭게 선보인다.

기아는 1일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 1종과 EV차량 전용의 'EV 스타일케어+', 'EV세이프티케어+' 2종으로 구성된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한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카케어 프로그램으로 기아 신차 구매 시 고객이 적립 받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K스타일케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

그램으로 이전 프로그램 대비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K스타일케어+' 프로그램 가입 시 차종에 따라 경형 4만 8천 포인트, 소형/중형 6만 8천 포인트, 중형/준대형/대형 9만 8천 포인트, 프리미엄 THE K9은 19만 8천 포인트가 차감되며,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경/소형 3부위 ▲중대형 4부위 ▲프리미엄 THE K9은 6부위로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하다. (※ 고객 자기부담금 10% 존재)

서비스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

어/휠 등이 해당된다. (※ 차종별로 보장 범위 상이함)

또한, 'EV스타일케어+' 프로그램은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해당으로 8만 포인트가 차감되며,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도어 또는 펜더 및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 교체 등 4부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별 보장 범위 상이, 고객 자기부담금 10% 존재)

EV세이프티케어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봉고EV 차량이 대상이며, 신차 출고 시 5만 포인트를 차감해 가입할 수 있다.

전손 사고 발생 시(도난, 침수, 화재 등) 신차 가격(보조금 포함)과 자

동차 보험 자차 전손보험금과의 차액 및 구매 지원금 100만원 보상이 이루어진다.

차량 손상 발생으로 '카케어 프로그램' 접수 시 전용 고객센터(1600-9440)로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800개소 오토큐(Auto Q)를 통해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기아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8월 1일부터 기아멤버스 홈페이지 및 MyKia를 통해 보유한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다. (※ 단, 영업용, 리스/렌트 제외)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아멤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 광주,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호응'

광주시가 추진중인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가 한부모가족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 상반기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9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 73명 중 65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7%는 가사서비스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으로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집안이 깨끗해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아이들에게 화내는 빈도가 줄었다 ▲가사 스트레스가 줄어 삶의 질이 향상됐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등을 꼽았다.

한부모 가사지원 사업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광주시가 지난해 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올해 100가구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가정이다. 민간 가사도우미 플랫폼을 통해 이용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회당 4만5천원 이내)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중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유빈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장을 바탕으로 소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사계, 외벽,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분양계획, 시공일 등 위에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